

제 2차 자치연대총회 안건

1. 평가합시다.

1) 모임별 평가

- 각 모임별 한 학기 활동을 평가

2) 전체 평가

- 연대 여성주의 운동의 상반기 전체 흐름 평가

3) 자치연대 평가

- 평가와 이후 자치연대를 지속할지 여부에 대한 논의

2. 계획을 세워봅시다.

1) 하반기 전체 흐름에 대한 계획

2) 9월 자치단체들의 공동행사 여성제 계획

3) 11월 선거 논의

※ 모임별로 안건에 대한 의견을 문서로 만들어 오도록 합시다!

13번째

1. 평가

▶ 13번째 평가

- 여전히 공유되지 못하는 13번째 정체성
구체적인 활동태가 없고, 활동의 기반이 없는 상태
살맛과의 관계가 너무 의존적임. 이는 자체적인 활동계획이 없고 활동의 역량이 부족한 상태때문이라 평가됨
- 학기 초 동쪽과 이과대 여회를 기반으로 느슨한 연대의 틀을 가져가면서 서로의 활동 공유와 논의의 장을 만들려고 기획하였으나, 진행되지 않음
현재적인 판단으로 느슨한 연대의 틀을 가져가는 것보다 13번째의 독자적인 활동틀을 가지는 것이 유리할 듯.
- 독자적인 활동을 진행하지 못하면서 재상산 메커니즘 또한 만들어내지 못함.
- 결국 상반기 동안 열세번째의 활동은 안정적·지속적이지도 못하였음.

▶ 연대 여성운동 상반기 흐름에 대한 평가

-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여성주의적 흐름이 존재하지 않음. 이전의 주제를 다시 언급하는 수준으로 활동이 진행.
주도 진행되었던 타 학교와의 연대활동 또한 학내로 소급되지 못함
- 각 모임별 독자적인 활동은 진행되었으나, 서로 공유되거나 지지해줄 수 있는 기반이 부족함.
- 총여의 반여성주의적 행태를 지적하지 못함. 철거 사건이후 이에 대한 지속적인 움직임이 존재하지 못함. 생도 홀로 싸움하는 형대로 진행
- 여성주의적 마인드를 새로 들어온 사람들과 공유하는 것이 문대를 제외하고 진행되지 못함. (두입술은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겠음) 여성주의자를 재생산하는 것이 점점 힘든 일이 되고 있음.
- 각 자치모임의 안착화에 대한 지적이 필요함.(장기적인 판단 요함) 이는 각 단위별로 뚜렷한 정체성이나 활동의 메커니즘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
- 활동의 주체들이 지치고 있음.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활동으로 활력이나 만족을 얻지 못하고 있음.

▶ 자치연대평가

- 자치연대는 물밑에서 여성주의적 마인드를 공유하고 있는 단체들이 서로 활동을 공유·지지하며 여성주의적 흐름을 학내에서 만들어내기 위한 기제여야 함. 그리하여 통신공간의 이용과 주기적인 모임을 중심으로 상반기동안 자치연대는 진행되었으며, 외부와의 연대이외에 학내에서 자치연대의 명의를 사용하지 않기로 함.
- 그러나 현재의 자치연대는 외부의 활동이나 자치 단체의 활동을 공유하는 공간이외의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함. 공유하는 것조차 3~4개 정도의 자치단체만을 대상으로 진행.
- 학내와 학외에서 명의를 달리 사용하는 것과 자치연대 명의사용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것

으로 인해 자치연대 자체가 애매해짐.

- 13번째 전체 논의는 진행되지 못하였으나, 시바 개인의 생각으로는 자치연대를 지속해야할 의의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음. 활동의 공유나 흐름에 대한 논의는 다른 자리를 만드는 것이 훨씬 나을 것이라고 생각.
- 남은 예산은 공동기획으로 알아서 판단.

2. 하반기 계획

▶ 13번째

- 방중 생도와 공동 기초 세미나를 통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것임.
- 월 2회 모임진행. 첫째주에는 활동가 모임진행. 셋째주에는 제기된 논의를 기반으로 자보쓰기 프로그램 진행.
- 하반기 생도와 함께 활동 및 사업을 진행하도록 제안하자라고 공유.
- 생도와 함께 생도를 기반으로 이론적인 작업을 진행.
- 여성학 교양수업에 대한 문제제기를 진행할 예정

▶ 하반기 흐름.

▶ 9월 셋째주 여성제

- 1주일 프로그램으로 하나의 주제를 정하여 각 단체별 행사와 공동 행사를 진행
- 주제는 군대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하여도 좋을 듯. 주제에 대한 고민은 13번째 내에서 진행되지 않음.
- 여성제 기획단 혹은 자봉단을 모집하여 함께 하는 각 단체별로 1인 정도가 기획단을 꾸리고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자봉단을 모집하여 공동행사는 진행, 각 단체별 행사를 조율.

▶ 총여학생회 선거

- 총여학생회와 자치단체의 관계를 어떻게 배제할지에 대해 논의가 필요. 총여학생회의 필요성이나 총여학생회의 발전적 해체에 대한 논의는 더 이상 필요없다고 생각함. 단, 총여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가와 여성운동의 관점에서 총여의 역할에 대해 논의해야 함.
- 선거는 해야 된다고 생각. 이번에 총여학생회를 잡는 것은 매우 중요.

법대 성연구 모임 - 동쪽 평가글

1. 상반기 전체적 평가

-여성모임으로서의 정체성이 부족

선배들의 여성주의적 마인드를 생성할 기회 부족

후배들의 동쪽에 대한 고민이 없음

전체적으로 동쪽에 대한 공동체 의식이 없었음.

그에 대해 서로 동쪽에 대한 생각을 공유하기 힘들.....

1) 세미나 평가

정기적인 세미나가 진행되지 않았음.

커리 선정은 무리가 없었으나 선배의 세미나 운영 미숙.

세미나의 구체적 틀이 고민없이 결정되고 고학번선배에 지나치게 의존.

2) OT사업

모반, beyond와 함께 간지사업을 진행하고 성폭력 반대 팩을 나눠줬음. 그리고 법대학생회와 함께 새터자치규약 발표.

동쪽의 활동이 활발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계기가 됨.

그러나 이것이 새내기 가입과는 연결되지 않았음.

3) 영화제

활동주체들이 제대로 일을 분담하지 못함으로써 한사람만 일이 치우쳐짐

의도는 동쪽의 활동 홍보, 주체생산, 동쪽인들이 공유할 수 있는 행사를 치름으로써 친해 질려고 했으나 실패...T_T

2. 하반기 계획

1) 여성연대한판 동쪽내에서 공유

2) 여성제 준비

3) 연고제 때 고대 법대 '하늘의 절반'과 교류

90년대 초반 운동의 위기에 대한 담론들처럼 여성운동 주변에서도 위기 운운하는 말들이 나도는 것 같다. 괜히 분위기 죽일 건 없지만, 반성해야 할 때인 것 같다. 그리고 그 반성을 '열심히 하자' '책임감을 가지자' '서로가 지치게 하지 말자'는 식으로 주체의 '태도'나 '자세'의 문제로 환원하지 말자. 좀 더 긴 호흡으로, 한발짝 물러서서 우리가 서 있는 '위치'를 읽자.
주관적이고 논쟁의 여지가 많은 만큼 생산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1. 여성운동의 관성화와 고령화

연세대 내 여성운동판에서는 근래 들어 저학번들의 지속적인 참여가 눈에 띄게 저조해지고 있다. 이런 현상들은 타 대학, 그리고 타 운동권에서도 공통되게 나타나고 있다. IMF이후 고실업 사회를 지나면서 명실공히 취업을 위한 준비와 경쟁의 공간으로 대학이 자리잡아가는 전체적인 분위기, 학점주의 소비주의적 삶의 패턴은 언제나 제도교육 외적 학습과 실천들을 어렵게 하고 있다. 학교 수업 외의 다른 무엇을 하기에는 너무 바쁜 일상의 연속이다.

이런 면에서는 제도교육과 비제도교육의 이중적인 부담을 안는 대신, 제도교육 내에서 실천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그럼에도 생각의 여지가 있는 것은 비주류적 활동들이 주류제도에 편입될 때 그것이 현재 비주류로 남아 있는 활동들에 대해 가중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제도로의 편입과 바깥에서의 활동의 차이에 대한 논의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학점주의 소비주의로만 돌릴 수 없는 문제가 분명 여럿 있을 것이다. IMF의 기표가 있기 전이긴 하지만, 95년 당시의 폭발적인 힘들 속에서 자발적인 운동주체가 곳곳에서 생겨났었을 때도 학점주의와 소비주의는 만연했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현재의 주된 활동가들의 생산이 당시에 이루어졌으며, 그때의 내용들이 여성주의내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다는 사실과 그때 이후로는 더 이상 자발적인 주체들의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개별적인 인맥 중심으로 사람을 모았다는 점을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이미 구성되어 있던 조직들간에 약간의 연대는 있었을지언정, 여성주의적 활동이 여학우 혹은 남학우들 스스로가 자발인 조직을 만들게끔 영향력 있는 담론들을 생산해내지는 못했다는 점은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때와 지금의 차이는 무엇인가?

2. 자치단체들의 활동에는 대략 다음과 같은 일들이 있었다.

방중 '여성학 학교' '여성주의 심포지엄'
신입생 수련회 기간 '성폭력 방지 캠페인'
학기초 '새내기 수첩 간지사업 - 성폭력 대처법, 여성학 도서 소개'
'오늘의 책 소개지 - 여성학 도서소개'
'OT 기간 장기자랑 비판 자보-새터에서 무슨일이 있어나',
'만약 남자가 멘스를 한다면-생리대 배포'
'성교육 수다판'
'3.6 여성노동자 대회 집회 참가'
'3.8 여성의 날 행사 - 여성노동권에 대한 선전 및 교양 세미나',
'여성실업기금 마련을 위한 베품시장'
'군가산제 폐지 집회'
'미인대회 반대 집회',
'메이데이 여/생 - 여성노동권 선전, 집회 참가, 문화제 준비, '교양학교.'
'대동제, 구조물-내 몸에 손대지 마!, 여성팔씨름 대회'
'통신공간 활동 - 민노총 포스터 문제제기, 외국 여성문제 지지 메일 등'
'성폭력 자치규약 제정운동 준비'
'동쪽-연애에 관한 영화제'
'성폭력 연대 회의'

이와 관련한 평가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1) 심화와 확장의 실패 : 여성운동의 독자성을 선언하던 95년 당시, 성정치와 맞물리며 여성주의는 새로운 진보적 질서를 창조할 상징적 힘을 가진 것처럼 보였었다. 계급으로 환원되지 않는 기괴하리만큼 억압적인 모순의 형태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면서 정치성을 띠었다는 점에서, 비록 총학생회의 명의를 빌어 시작하기는 했지만 결과적으로 학생운동 정파와는 무관한 운동주체(정확히 말해서 여성주의적 주체)의 형성을 가능하게 했다는 점에서 성정치 문화제는 획기적인 전환점이었다. 그 분위기 속에서는 학생

회의 가부장성에 대한 비판을 비롯해 학생운동 전반에 대한 문제제기하고, 정치의 영역을 넓혀 다양한 영역에서의 문제제기와 비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론적 실천적 역할까지 그 속에 내포할 수 있었던 것처럼 보였었다.

그러나 진본진영의 담론을 지탱하는 제반 조건에 대한 문제제기하면서 새로운 정치가 가능할 것이라는 분위기는, 현재 여성의 권리찾기에 대한 담론 정도로 축소되고 선취하였다는 느낌을 주고 있다. 여성주의를 지탱하고 있는 몇가지 테제들 아래에서의 전면적인 문제제기의 가능성과 정치성들은 사라지고, 대신 눈에 보이는 명백한 차별과 가끔씩 벌어지는 초가부장들 내지는 도덕적 근본주의자들의 몇몇 사건(?)에 대한 거부감을 동력으로 수동적인 대처만을 하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아야 할 것 같다.

(2) 이론적인 한계 : 지난 겨울방학 중 여성주의 활동을 해온 고학번 및 대학원생을 중심으로 십여명을 넘어서는 친구들이 2 달여의 준비기간을 거쳐 여성운동 심포지엄을 기획했었다. 98년도 한 해 동안의 활동을 하면서 부딪히고, 딜레마에 빠졌던 몇가지 이론적 실천적인 주제들에 대해 이들에 걸쳐 타학교 포함 서른여명 정도의 활동가들이 모여 토론하고 논의하는 과정을 가졌었다.

당시 세가지 주제로 이루어졌었다. 첫째, 그간 내부에서 가장 많이 회자되었던 '차이'가 어떤 맥락에서 언급되어졌는지를 이론적으로 검토하고 내부에서 쓰이는 방식과의 비교해보면서 좀더 정교하게 사용될 필요가 있다는 것, 둘째, 7-80년대 여성운동에 대한 평가를 통해 95년과 대학여성운동의 현좌표를 다시금 되돌아보며 '개인적인 것은 정치적인 것이다'로 시작되는 경험주의적 정치와, 제도적-물질적 억압기구들에 대한 집단적 투쟁 사이의 문제설정 같은 것, 그리고 이른바 '감수성의 차이'로 곧잘 부딪쳐왔던 문화적 실천, 여성주의적 조직의 형태, 여성주의 의식확산의 방법에 대한 논의, 셋째 98년도 학생회라는 공간의 활동속에서 끊임없이 고민하게 했던 성과 계급의 문제, 학생운동 정파와의 관계설정에 대한 문제들을 고민하였다. 그 이후 재평가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대체적인 평가로 볼 때 현재의 이론적인 딜레마와 한계에 대해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했으며, 후배들의 참여가 저조하여 별다른 영향을 가지지 못한 것 같다.

탄탄하지 못한 이론적 자신감은 활동과의 괴리를 가져오면서 이중적인 부담을 주고 있다. 활동에 대한 자신감의 부족은 눈에 보이는 분명한 억압과 차별에 대해서만 문제제기하고 대처하는 것으로 여성주의를 물고가고, 그 속에서 아쉬움으로 남는 것은 이론에 대한 강박을 더욱 부채질하면서도 활동과 괴리된 이론적 작업 속에서 이론들이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이다. 저학번들을 대상으로 하여 신변잡기적인 이야기로서 세미나를 하고 난 후에 그럼 어떻게 하지요라는 후배들의 질문 속에서 선배들은 대답 대신 손을 잡는다. 우리 이제 한번 고민을 해보자.

(3) 이론의 부재속에서 겪는 어려움들은 "개인적인 것은 정치적인 것이다!" "차이" 등 여전히 여성주의를 지탱하고 있는 테제들의 대중적 이데올로기 속에서 찾아질 수 있다. 그것은 정치적인 맥락에서의 정교하고 비판적인 사용들로 확장되는 무기가 되지 못한 채, 자기 변명적 어조 속에서 경험주의적 다원주의적 딜레마에 빠지곤 한다. 그 결과 "이건 너무 싫어!"라는 식의 심미적인 비판이 주를 이루면서 저항과 역비판을 받고 있는 것 같다. 감수성의 통일성 속에서 우리라는 울타리 안에 안주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외부에서 사건들이 터지면 분노를 하면서 더 이상 풀어내지 못하는...

(4) 주제들의 단순화 : 심하게 단순화시킨다면 현재 학내 여성운동의 내용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성폭력 문제'와 '여성실업문제'로 볼 수 있으며, 그것을 풀어내기 위한 몇가지 실천의 양식들도 대체로 정해져버린 것으로 계도화되어 있다. (정기적인 집회 참가, 여성주의 문화제-자료집, 구조물, 팸지, 대자보, 영화제). 차별에 대해 가장 분명히 드러나는 이 두 가지가 학내 여성운동에서 주도적으로 되면서, 한편으로 다른 운동의 가능성들에 대한 논의와 내용들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이 두가지 주제를 두고 볼 때 그것의 운동형태가 집회와 자보선전이라는 기존의 방법론을 넘어서기 힘들다는 한계까지 가지고 있는 것 같다.

(5) 모두가 동의하는 여성운동 : 이론적인 부재와 여성운동의 계도화 속에서 우리는 조금 이상해 보이는 현상들을 목도하고 있다. 너무나 많은 이들이 여성주의에 동의해 버리는 속에서 여성주의의 정치성을 상실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반문이다. 여성의 억압된 상황에 대해 동의한다는 목소리는 무수히 남아있으면서도 실상은 그 어떤 실천도 변화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아이러니를 볼 수 있는 것 같다. 일상적 평등주의자?

비슷한 현상을 여성주의 내부에서도 볼 수 있는 것 같다. 새로 들어온 새내기들도 페미니즘을 다 꿰고 있다는(?) 것이다. 어떤 주제들에 대해 새내기들이든, 남성들이든, 바깥에서 호의적인 친구든 이미 정답지를 갖고 있다. 여성들은 억압되었고, 남성들은 나쁘다는, 다시말해 남성과 여성이 대립하고 있는 어떤 지점에서 여성의 피해는 아주 자명한 것처럼 읽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주장들에 대해서 이제는 다른 맥락들과 운동을 보여주지 못함으로써, 운동의 영향력들이 광범위하게 줄어들고, 스스로를 제한시키는 것은 아닐까? 여성차별에 대해 가볍게 동의하는 친구들과의 손쉬운 동일시나 반대로 그들에 대한 거부감들 속에서, 제외되고 간과되는 것은 무엇인지, 그 사이에서 무엇을 끌어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자문해 보아야 할 것이다.

(6) 이 모든 것들은 페미니즘이라 불리우는 정치적 발언, 실천, 지식에 언제부터인가 따라 붙기 시작한 '분리주의'라는 꼬리표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 꼬리표가 여성주의에 대한 근거없는 표상이라고 볼 수만은 없을 것이다. 언급했듯이 여성학적 전제들에 대한 공유와 그것들의 정치화 대신 심미적인 비판이 주를 이루면서 모종의 거부감을 준 것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꼬리표의 무게와 성차별의 자명함 속에서 악순환하며, 일상적으로 불평등과 폭력을 경험하고 있는 학우들과 여성주의자들은 입을 제대로 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비슷한 상황들을 겪어왔을 것으로 추정되는 서구에서의 최근의 여성운동과 여성학 이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때가 아닐까? 이해하기 힘든 논의들과 그것을 풀어낼 양식의 생산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속에서 현재의 유쾌하지 못한 강박적인 상황들 속에서 지치고 있는 것이다.

2, 3년 전과 달라진 것이 거의 없는 커리큘럼에서, 그나마도 소화하지 못하는 상황속에서, 적어도 여성주의 내부에서는 좀 더 심화되고 체계적인 여성학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 같다.

(7) 이론적인 한계 속에서 여성주의의 확장과 심화에 실패했다면, 반대로 어떤 면에서 여성운동이 일종의 거품으로 남아있는 것은 아닐까? 성정치 문화제의 95년 이후 가시화된 여성운동의 흐름은 미약하나마 여전히 상징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타학교의 경우 운동권(?)과의 관계에서 여성운동의 기반이 약한 것에 반해, 우리학교의 분위기는 속내용이야 어떻든 대체적으로 여성주의나 '여성'이라는 주제에 대해 쉽게 무시하지 못하는 분위기들이 있는 것 같다. 이것이 오히려 무게로서 다가오고 있는 것은 아닐까?

현재 여성운동을 주도적으로 해 나가는 주체들이 별로 많지 않다. 그럼에도 그 범위와 활동에 있어서 여성주의적 주제들은 너무 산적해 있어 결과적으로 힘을 분산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재고해 보아야 한다. 일일이 짚어가야 '할 것 같은' 주제들은 술하게 많은데, 부족한 주체들로 활동들 하나하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대중적인 호응 없이 계속 지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반문이 필요하다. 이는 여성운동이 다양한 방면으로 확산되어가야 한다는 주장과 일견 대립되어 보일수도 있다. 그럼에도 현재 여성주의 내부에 있는 주체들은 97-8년과 달리 학생회나 다른 활동들을 함께 하는 친구가 많으며, 그것이 여성주의의 확장을 불러오는 경향보다는 여성주의적 색깔(?)이 무마되는 방향으로 흐르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운동의 뿌리내림과 전문성, 그리고 좀 더 시간을 준비가 이루어진 활동을 펼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단과대를 기반으로 한 자치단체가 현재 문대 '모반'과 사과대 '비욘드', 법대 '동쪽'이 있다. 이들은 자시의 단대를 대상으로 하여 활동을 하는 특수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여러 가지 이점을 가지고 있다. 단대 내 행사에 참가하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다거나, 단대 학생회를 통해 공간과 재정에 대해 일정하게 청구하고 도움을 받을 여지가 남아 있는 것이다. 또한 두입술의 경우 너무 간격이 길기는 하지만 학기에 한번씩 책자를 발행하는 준비를 오랜 시간을 들여 함으로써 어느정도 안정된 기조를 가지고서 내실을 기하고 있는 것 같다.

이에 반해 다른 자치단체들은 불안하다. '움'과 '열세번째'는 프로젝트 팀으로 기획이 있으면 그때그때 모여서 활동을 하고 있다. 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생도는 현재 어떤 활동을 하고 있지 못하며 다른 곳에서도 이슈 파이팅의 해프닝으로 끝나곤 하는 것이다.

(다음은 현재 자치단체들의 여성운동에 고유한 문제점이겠지만, 자치단체들의 위상과 비중이 중요하다면 그들의 물질적인 조건과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아주 중요한 것들이다.)

3. 학내 여성운동에서 선거의 영향은 크다. 비단 공간과 재정의 문제 뿐만 아니라, 선거라는 공간을 통한 정치활동, 선거기간 내의 갈등, 승패에 따른 중요성과 후유증, 선거기간 동안의 역량의 집중과 소비, 선거를 의식하는 1년간의 활동 등. 실상 작년 선거 이후 심리적인 패배감과 상처, 무력함들은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컸다. 패배를 통해서 확인되는 여성주의의 현 주소에 대한 성급한 실망과 함께. 또한 작년 서울 지역에서 여성주의를 표방했던 총여선거 대부분에서 패배했다는 것은 좀 더 중요한 내용과 문화적 맥락들을 그 속에 담고 있을 것이다. 돌아보고 싶지 않아도 선거제도에 대한 재평가와 논의가 꼭 필요할 것이다.

4. 공간 : 공간을 중심으로 한 통일성은 거의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 작년 총여실을 중심으로 한

여성주의 활동의 통일성은 현재 와해되고 있다. 공간의 부족으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루어지는 모임 속에서 각 자치단체의 구성력이 현저히 떨어질 수 밖에 없었다. 일상적인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심화할 수 있는 분위기가 지속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현재 7-8개의 자치단체가 공통으로 쓰고 있는 구상대 뒤의 가건물에 있는 좁은 '동쪽'방에 우리 학교 내 가시적인 여성운동의 주체들 거의 대부분이 모여 있다. 이과대 여학생회를 제외한 자치단체가 독립적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은 한 군데도 없다. 일상적인 생활을 이곳에서 함께 하는 속에서 각각의 자치단체들간의 차이가 거의 없어지거나 비슷해지고 있으며, 반대로 이 공간에서 형성된 분위기에 적응하지 못하는 친구들과는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힘들어지고 있다.

좀 더 실질적으로는 작년 총여학생회 내에서 공간과 재정을 받으며 활동했던 '생활도서관'이 학우들이 드나들 수 있고 책을 관리할 수 있는 공간을 가지지 못함으로써 올해 들어 아무런 활동도 하지 못하고 있으며, '두입술' 역시 재정과 공간상에 있어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다.

5. 기독교 학교에서 성정치 문화제가 시발되고, 여성주의적 여성운동이 그나마 활발했던 연세에서 기독교 여성운동을 표방하는(?) 총여가 당선되었다는 것은 의미심장해 보인다. 95년 이후 여성운동은 어떤 면에서 기독교와의 투쟁사로 읽힐 수도 있다고 누군가가 농담처럼 한 적이 있다.

서로에 대해 곡해하거나, 선거 당시의 패배감에 연연한다거나, 여성운동의 다양성을 내용으로 하여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자는 정도의 단순한 문제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 같다. 저변의 문법이야 어떻든 표면적으로는 기독교여성운동이 여성주의 운동에 대한 반감과 거부감, 여성주의와의 차이를 자신들 논리의 주요부분으로 삼으면서 나섰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여성주의자들에 대한 '분리주의'라는 표현을 이들이 가장 여과없이 보여주고 있다. 97년초 총여학생회에 출마한 이후로 계속해서 '기독교여성모임'의 이름으로 '새로운 '여성해방운동'- 정확히 말해 '여학생운동'-을 펼쳐나가겠다는 이들이 현재 총여학생회 활동을 하고 있다. 기독교 자체가 어떤 억압에 대한 해방을 내재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에서 이들을 먼저 경계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들의 내용이 종종 여성주의의 내용과 직접적으로 대립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들에 대한 비판과 내부적 비판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여성주의와 기독교여성운동과의 대립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모색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별로 생산적이지 못한 것 같기 때문이다. 어려운 문제이다.

나오며

글 전체에서 '여성운동의 위기'를 전제하고서 문제제기하였기에 어둡 무거운 질문들이 된 것 같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운동권이든 아니든, 공대든 문대든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별다른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자기확인을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질문들은 자기 평가인 한에서 아마도 제한되어 있고 또한 과장되어 있을 것이다. 연세의 여성운동이 자치단체들에 의해 이끌어져가고 있다는 식의 내용은 오만하면서도 부담스러운 명제임에는 틀림없다. 우리는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믿고 있다.

정리하자면, 언젠가부터 여성주의 운동에서 느끼는 불안함들이 내부적으로 끊임없이 확인되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설명할 만한 심화된 논의와 언어가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어려움으로 보인다. 딜레마 속에서의 자신감 상실, 그로 인해 자기방어적인 심미적 비판과 분리주의라는 악순환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점에서 심화된 논의의 자리로서 여성학적 주제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공급이 꼭 필요할 것 같다. 동아리나 학회에서 바라본 평가와는 반대로, 여성주의 내부에서 현재의 여성학 수업을 듣고 있는 많은 친구들은 실망스럽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다원적이고 심화된, 여성학의 공급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고 있다.